34

복부대동맥류의 외과적 치료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서정욱 · 방정희 · 편승환 · 최필조 · 성시찬 · 우종수

복부 대동맥류는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와 진단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증가 추세에 있는 바 이에 저자 등은 1992년 5월부터 1996년 6월까지 4년 2개월 동안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 수술치험한 26례의 복부대동맥류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대동맥 박리증과 흉부대동맥류와 동반된 복부대동맥류는 제외하였다. 환자의 남녀 성비는 20:6으로 남자에서 많았으며 연령분포는 29세에서 76세로 평균 연령은 59.0±13.4세였고 특히 50대이상에서 21례로 81%의 높은 발생률을 보여주었다. 과거력상 고혈압의 병력을 가진 환자는 12례(46%)였으며 내원 당시의 주 증상은 복, 배부의 동통과 박동성 종괴의 촉지가 가장 많았다. 복부대동맥류의 발생위치는 전체 26례중 25례(96%)가 신동맥하부대동맥에서 발생하였고 1례에서 신동맥상부대동맥에서 발생하였다. 복부대동맥류를 임상 증상, 방사선학적 진단, 그리고 수술 소견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 복부대동맥류, 임박성 파열(Impending rupture)의 복부대동맥류, 파열된(Ruptured) 복부대동맥류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먼저 내원 당시 파열된 복부대동맥류를 가진 환자는 전체 26례중 10례(39%)였으며 모두 갑작스런 심한 복,배부 동통을 호소하였다. 동맥류의 크기는 평균 8.4±1.6cm이고 평균 연령은 55.8±15.3세였다. 이 중 2례(20%)에서는 동맥류 전벽의 복강내 파열로 대량 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응급 수술을 하였고 나머지 8례(80%)에서는 동맥류 후측벽의 후복막내 파열로 출혈이 후복막에 국한 적으로 생겨 대량 출혈의 증상은 없었으나 역시 응급수술을 하였다. 다음 임박성 파열(Impending rupture)의 복부대동맥류를 가진 환자는 전체 26례중 5례(19%)로 동맥류의 크기는 평균 6.6±2.8cm이며 평균 연령은 63.8±4.9세였다. 술전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침투성 궤양(Penetrating ulceration)의 소견과 일치하는 수술 소견을 보이는데 궤양으로 인해 동맥류벽의 파열이 진행되는 경우였다. 그 다음 단순 복부대동맥류는 전체 26례중 11례(42%)로 동맥류의 크기는 평균 6.7±1.7cm이며 평균 연령은 59.8±14.29세였으며 이 중 1례에서 신동맥상부대동맥에서 동맥류가 발생하였다. 수술방법은 26례중 25례에서 동맥류 절제술과 인조혈관 치환술을 시행하였으며 이 중 19례(76%)에서 Y Graft를 사용하였으며 6례(24%)에서 Straight Graft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1례는 가성 동맥류의 파열로 파열된 동맥벽을 장골 동맥 일부를 이용하여 동맥성형술을 시행하였다. 술후 합병증은 7례(27%)로 파열된 복부대동맥류에서 3례(30%) 있었는데 1례는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기관 절개술을 시행하였으며 1례는 대량 수혈로 인한 출혈성 경향으로 수술 부위의 출혈과 창상 감염이었고 나머지 1례는 인조혈관 감염으로 인조혈관 제거술후 대동맥결장루가 생겨 누공절제술을 하였다. 그 외 나머지는 급성 신부전증이 1례, 상부 위장관출혈이 1례, 술후 수술부위 출혈이 1례, 창상 감염이 1례였다. 그리고 수술을 시행한 환자중에서 사망례는 없었다.